

# 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

## 1. 서언

미국에서 고의가 아닌(우발적인) 상해사고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관리하고 있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공공의 건강문제는 남아 있다. 향상된 부분은 근로자 10만명당 사망률이 비교적 낮다는데 있다. 그러나 사망자수는 1992년과 비교할 때 30% 증가하였다. 이 중 암, 만성호흡부전, 우발적 상해 및 당뇨병에 의한 사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발적 상해가 가장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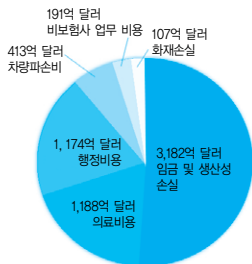
해 2004년도에는 3,320만명(9명당 한명꼴)이 상해에 대한 의료 치료를 받았다.

우발적 상해는 사회적으로 6,255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는 각 가정당 5,500달러, 사람 1인 2,100달러에 해당한다.

〈2005년도 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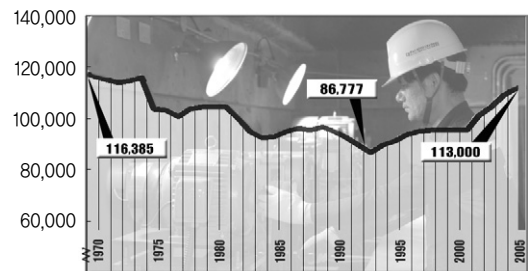
발생치	장애성 상해자	사망자	비용
총 우발적 상해	2,410만명	113,000명	6,255억달러
가정 및 지역 사회의 상해	1,810만명	64,600명	2,386억달러
작업장 상해	370만명	4,961명	1,604억달러
자동차 상해	240만명	45,800명	2,477억달러

(※ 산업체 및 자동차 상해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총 건수에서 제외 됨)



〈2005년도 우발적 상해의 부분별 비용〉

우발적 상해는 1세에서 41세까지 제1의 사망원인이며, 다섯 번째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다. 이로 인



〈미국의 1969~2005년 사이의 총 우발적 상해 사망〉

## 2. 작업장 상해 사고


미국에는 작업장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작업장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작업장 안전은 지속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 가. 근무시간 이후의 위험


(2005년 근무 중과 근무 이후의 비교)


#### ▲ 사망자(10 : 1)

- 근무이후 : 49,300 


- 근무 중 : 4,961 


#### ▲ 상해(2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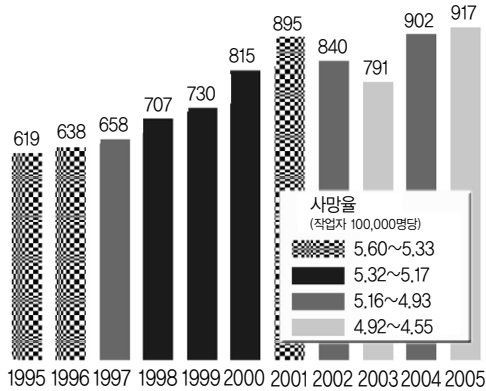
- 근무이후 : 820만 

- 근무 중 : 370만 

▲ 비용(7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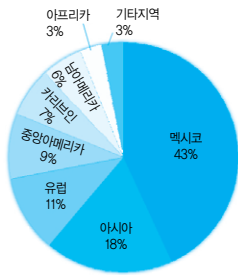
- 근무이후 : 2,237억 달러 

- 근무 중 : 1,604억 달러 



〈미국의 1995~2005년 사이의 라틴아메리카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 나. 외국인근로자



〈근로자 국적별 산재·사망 사고 비율〉

### 다. 다문화적인 노동력

미국의 모든 근로자 15%가 외국인이며, 이 중 17%가 사망사고를 당하고 있다.

### 라. 어린 근로자

16세에서 24세 사이의 근로자 성장률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젊은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34세가 되기까지 평균 아홉 번의 직업을 바꾸는데, 이때 교육·훈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마. 고령의 근로자

55세 이상의 노동력(2007년에 2,300만 명)은 매년 4.1%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총 노동력 성장률의 4배에 해당된다.”

## 3. 도로 교통안전

교통안전은 개선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몇 가지 원인들로 아직도 충돌과 사망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와 운전자 보호 장비의 미사용은 수십 년간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속도와 부주의한 운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에 있어서 차량사고에 의해 45,800명 사상, 2,158명의 작업관련 사망(총 작업관련 사망의 38%), 240만명은 장애성 상해 및 2,477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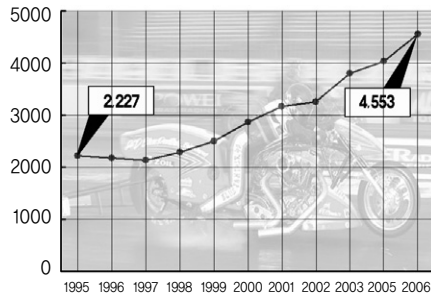
### 가. 연령그룹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2008년 3,510만명에서 2020년 5,4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세에서 20세까지의 모든 면허소지 운전자가 6.3%를 차지하지만 충돌·사망사고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 나. 오토바이

2005년도에 오토바이 운전자 중 사망자의 절반이 40세 이상이다.



〈미국의 1995~2005년 사이의 오토바이 사망자〉

### 라. 사고의 주요 원인

#### (1) 음주운전

2005년 16,885건의 차량사망·사고가 음주와 관련 되어 발생되었고, 모든 차량 사망·사고의 3.9%에 해당된다.

#### (2) 운전자 보호 장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로 16,000명의 운전자가 2005년에 사망하였다. 이후부터 미국 49개 주 및 콜롬비아 자치구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 하였고, 현재 뉴햄프셔주에서는 이에 관한 법이 계류 중에 있다. 현재 전반적인 안전벨트 착용률은 81%이다.

#### (3) 속도

속도는 13,000명이 차량 사망·사고를 당하는 주 원인이다. 이들 사망자의 거의 절반은 제한속도(시속 약 90km) 이상 주행으로 많이 발생한다.

#### (4) 운전 부주의

운전자 부주의는 차량 충돌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충돌할 뻔한 사고 또한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 〈충돌 주요 원인〉

- 졸음운전 시 4배 증가
- 차량이 움직일 때 물체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9배 증가
- 휴대용 전자제품 등을 조작할 경우 3배 증가 (거의 언제나 10%의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

### 4. 가정 및 지역사회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우발적 사망·사고는 지난 10년 동안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 증가는 일차적으로 약물중독 및 추락에 의한 사망이 증가에 주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치명적 약물중독은 어린 이들에게는 없고 마약복용 및 성인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추락사망은 중장년에게 많이 나타났다.

#### 가. 2005년도 불법 의약품 복용 현황

(1) 12세에서 17세 사람 가운데 250만명이 현재 불법 의약품을 복용하며, 이것은 같은 연대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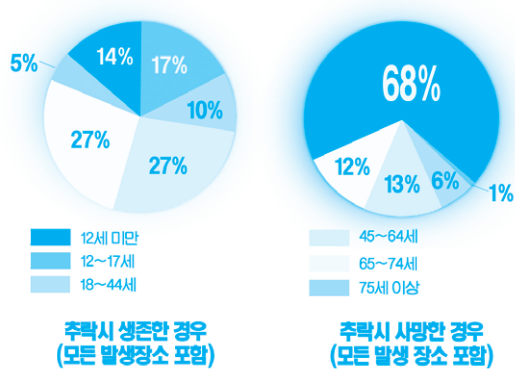
에 해당한다.

(2) 18세 이상에서는 1,720만명이 현재 불법 의약품 복용하며 같은 연대 인구의 7.9%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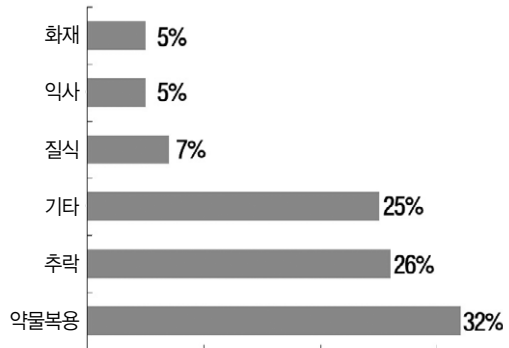
(3) 정규직 근로자의 8.2%가 불법 의약품을 복용

(4) 비상근 근로자의 10.4%가 불법 의약품을 복용

(5) 18세 이상 불법 의약품 복용자의 74.8%가 취업 중으로 1,290만명에 달한다.



〈2003년의 연령별 추락사고〉



〈2005년도 가정 및 지역사회의 사망원인〉

〈출처 : 미국 NSC의 Safety+Health, 2007년 6월호〉